

인터넷 전자신문 현대불교 http://news.buddhapia.com

부처님 우리 곁에 다시 오신듯...

간다라 미술대전

2천년 불교미술 원류와 만남 부처님일생 사실적 조각 '눈길'

7월1일~8월29일 예술의전당 미술관



◇ 첫 선경 (68.6cm), 시트르타 태지가 사문유관 후 첫 선경에 걸린 모습이다.

불교신앙의 결정체로서 우리가 매일 경배 드리는 부처님상. 그 원형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은 자신의 상을 만들어 경배 드리려는 시도를 일체 금지시켰다고 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 입멸후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탑을 통해 가르침을 확인하려는 탐신앙이 유래했고, 근본 가르침인 인연설은 불탑에 새겨진 설화형식의 부조를 통해 표현되었다. 그래서 부처님 입멸후 불상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500여년동안 부처님은 보리수나 스투파, 법륜(法輪, 보좌) 등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됐다. 불자들은 상징화된 형상속에 부처님이 있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무불상(無佛像)시대를 거쳐 비로소 인간적인 모습을 한 부처님상이 최초로 태어났는데 이것이 간다라 불상이다.

불교미술의 원류로 평가받는 간다라 불교미술작품들이 대거 우리나라에 왔다. 간다라불교미술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간다라미술대전'이 7월 1일~8월 29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열린다.

서양고전미술과 동양불교의 만남이 이루어진 간다라불교미술의 진품들이 국내에 소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전시에는 파키스탄의 국보급 간다라 유물 121점이 선보인다. 카라치 파키스탄 국립박물관을 비롯해 이슬라마바드 박물관, 탁실라·스와트·케사오르·디르 고고박물관 등 6개 박물관에서 진품을 가져왔다. 대승불교의 요람이었던 고대 불교 도시 간다라의 발굴현장과 사원이 있었던 터, 사원에서 쓰던 생활용품, 사리기, 역대 군주의 모습이 담긴 화해, 장신구, 상아 세공품, 일상용기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도리천으로부터의 강하' '미아부인의 꿈과 꿈의 해석' '탄생과 목욕' '미망의 공격' '우주빌라 가집에게 독룡이 든 사발을 보이는 붓다' '붓다와 재가신도들' '붓다의 관과 슬퍼하는 제자들' '대열반' '붓다의 화장' 등 한편의 그림을 보듯 부처님의 일생에 토대를 둔 사실적 조각들이 눈길을 끈다. 다만 뼈와 깃털이 드러날 정도로 고통하며 수도에 정진하는 형형한 눈빛의 그 유명한 '시트르타 고행상'은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국외전시 금지돼 복제품으로 선보인다.

살아서 금방이라도 움직일듯 표정과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된 '붓다와 브라흐만들', 부처님 입멸후 이뤄진 결집의 상황을 보여주는 '경전에 관해 의논하는 승려들' 등도 눈여겨 볼만한 작품들이다.

간다라 미술은 정관암개봉의 주제로 조각후 반질반질 윤이 나게 연마해, 감개 운이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단독 예배상을 제외하면 부처님의 일생을 새긴 이른바 불전부조(佛傳浮彫)가 간다라 불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중인도 불상 조각이 부처님의 전생설화를 위주로 부조 작품을 조성할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간다라미술은 초월적인 부처님의 세계를 상징하려 한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에서 고뇌하고, 깨닫고, 제도하려고 무한히 애쓰다가 열반하신 부처님과 제자, 그리고 그 후의 승단의 변천을 표현하는데 주력했다.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간다라불상은 그리스 신상(神像)의 영향을 받아 머리커락이 물결모양의 장발이며, 눈언저리가 깊고 콧대가 우뚝해 서양사 랑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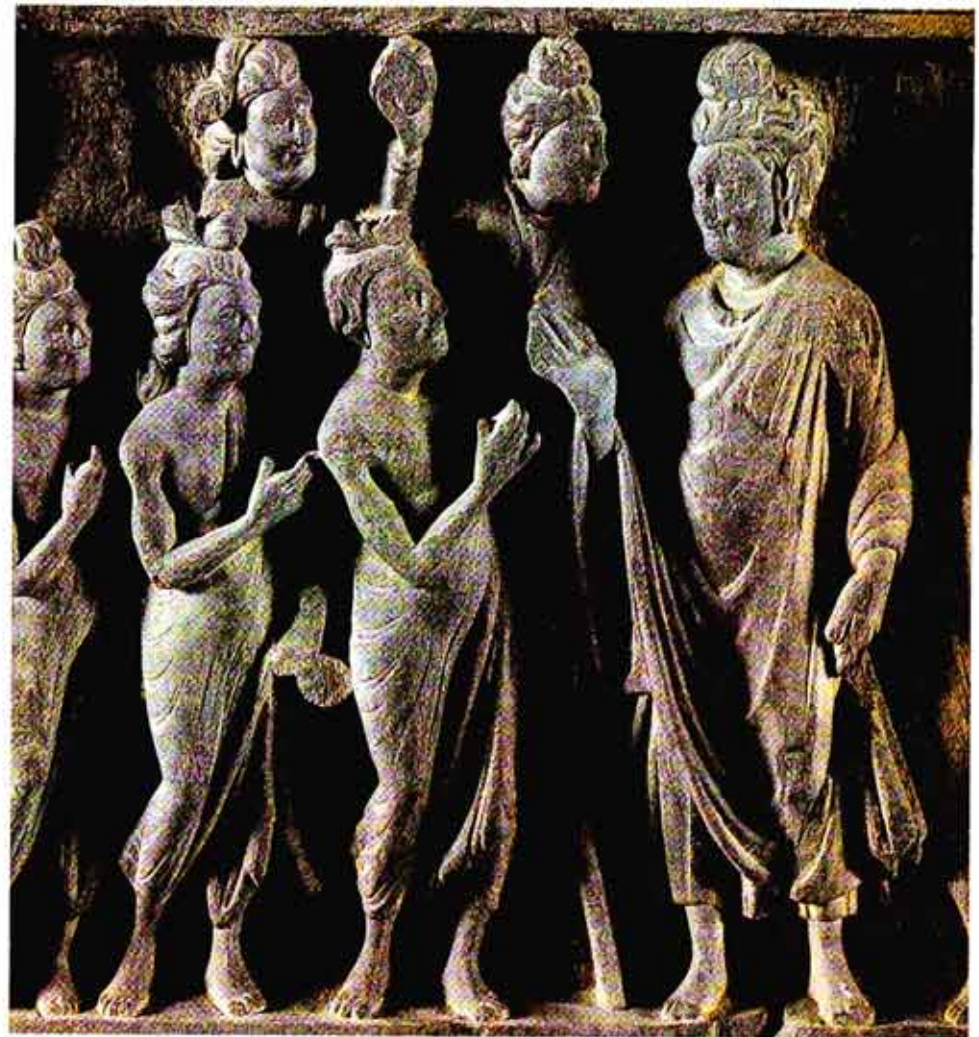
이같은 간다라의 불교미술은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는 물론 서역과 동아시아 전역으로 전해져 불교미술 발달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한국의 대승불교 미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중앙의 부처와 그 양쪽에 보살이 있는 삼존상은 우리나라 삼존상의 원형이라고 전하고 있으며, 그 밖에 반가사유상, 관세음보살이나 미륵보살의 신앙도 간다라 지방에서 일어나 한국의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세련되고 사실적이면서 우아한 이상적 사실주의 조각의 최고 걸작이라 하는 경주 석굴암 불상의 미소와 조각양식도 간다라 미술양식의 영향을 받았다.

이번 전시는 한국불상의 원류인 간다라불상의 경통을 다시한번 조명함과 동시에 21세기 새로운 문명시대에 걸맞는 창조적 불교미술부흥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02)580-13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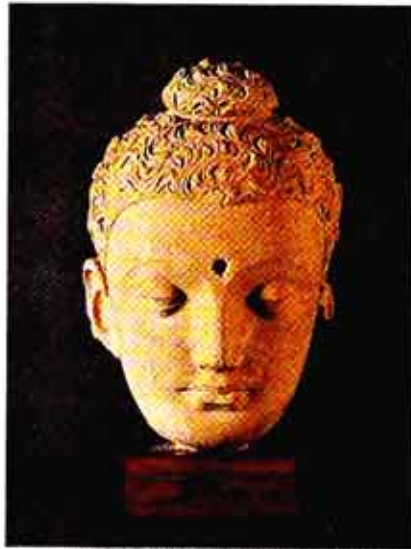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6월30일 열린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신스님,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무하마드 아신 파키스탄 정무장관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 '붓다와 브라흐만들' (원상, 부조, 68x38cm), 브라흐만들과 대화를 나누는 부처님의 모습이 금방이라도 움직일듯 생생하다.



◇ 명상적 분위기의 '대형 불두' (55.9x34.6cm), 4세기.



◇ '팔십법도' (60cm), 오른쪽과 왼쪽이 떨어져 나갔지만 중앙에 부처님이 설법자세로 연화좌에 앉은 모습이 여려하다.



◇ '스투파형동제 사리기' (39.4cm), 사방에 소형불상이 있다.



◇ '웃음 비경' (11x27cm), 출가를 위해 성을 탈출한 후 말과 마부를 성으로 돌려보낸 시트르타 태지(오른쪽 두번째)가 마지막 남은 세속의 흔적인 의복을 사냥꾼과 바꿔입는 모습.

전시 총책임자 아쉬랍 칸 박사

"간다라미술대전 계기 한-파 문화교류 기대"

"대승불교가 처음 시작된 파키스탄의 불교문화는 대승 불교가 꽃피 한국에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하마드 아쉬랍 칸 박사(파키스탄 문화부 고고박물관 부국장의 말이다. 칸 박사는 프랑스 파리 소르본느대학에서 간다라미술 석박사 학위를 받은 귀재로 이번 전시의 총책임임을 맡았다.



불교전성기 시절 파키스탄 지역에는 6,000개의 이상의 절이 있었다고 전하는 칸 박사는 현재 복원된 절은 30개 정도며 사적지는 500군데 정도라고 밝혔다. 또한 이슬라마바드에 정부 지원을 받는 불교센터가 있어, 이곳에서 소수의 승려들이 교육과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고.

간다라미술은 파키스탄의 유명 박물관에 소장된 작품외에도 프랑스 파리의 기메미술관에 6,000여점,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12,00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과 파키스탄의 첫 불교문화교류라는데 이번 전시회의 큰 의의가 있다"는 칸 박사는 "이를 계기로 양국간 불교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다라는 어떤 곳

간다라는 힌두부시와 카라코람 산맥으로 둘러싸인 지금의 파키스탄 페샤와르의 평원 지역이다. 간다라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기원전 3세기 아쇼카왕 때이다.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아쇼카왕은 불법에 귀의한 이후 많은 포교승들을 인도 각지로 보냈는데, 그 중에 서북방의 간다라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일찍부터 동서와 남북으로 자리잡았고, 기원전 4세기 동방원정을 나섰던 알렉산더의 발길이 닿았으며 그가 남긴 헬레니즘 문화는 인도에서 전해

파키스탄 페샤와르 평원 아쇼카왕때 불교 전래

진 불교와 만나 쿠산왕조(Kusana 기원후 1세기중엽~220년)의 찬란한 불교미술을 탄생시켰다. 특히 이곳에 전해진 그리스인들은 삼과 존재의 본질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던 불교에 상당히 매료되어 불전에는 메난드로스라는 그리스인 왕과 나가세나라는 인도승려가 불교에 대해 나눈 대화를 기술한 <밀린다광화>라는 경전이 전하고 있을 정도다. 간다라는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에 불교가 처음 전해지던 시기에 대승경전을 중국에 전하고 번역했던 많은 승려들이 이곳 출신이었고, 대승경전 중에는 이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듯한 내용들도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대승불교의 논사(論師)들인 마명, 무학, 색친 등이 이곳 출신이다. 혜초, 현장과 같은 고승들이 구법순례를 했던 곳도 간다라다.

7세기 전반 인도를 순례한 현장스님에 의하면 페샤와르 분지에만 1,000여군데의 사원이 있었으며, 이러한 불교사원들에는 커다란 불탑과 수많은 불상과 보살상이 봉헌돼 있었다고 전한다.